<순자>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익을 좋아하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고 보았다

사람의 마음은 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 인간의 마음은 인의를 알 수 있는 도덕적 인식 능력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늘은 자연 현상이며 인간의 선행과 악행에 반응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하늘의 명령인 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지 않는다

<공자>

모든 사람이 인격자가 되기 위한 수양을 해야 한다

<맹자>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노자>

노자와 맹자는 모두 삿된 욕심을 멀리하고 인격 완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자>

도가 사상은 모두 생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생을 기르고 보양하기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주자>

기질지성은 기질의 영향을 받은 본성이므로 선악이 혼재한다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순선한 본성인 본연지성은 기질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앎과 행함은 서로 의존한다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효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 앎이 지극해지기를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

만물을 이루는 기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만물은 서로 다르다

인간의 마음에 내재한 이치와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구분하였다

<왕수인>

지와 행은 나란히 간다

뜻이 선을 행하는 데 있으면 곧 일에서 그 선을 행하고, 뜻이 악을 없애는 데 있으면

곧 일에서 그 악을 행하지 않는다

마음의 본체가 선이고 성이 곧 이치이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양지가 잘 발현되면 도덕적 행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이>

이는 무형이고 무위이며 기는 유형이고 유위이다

무형무위한 이는 동하지 않으며, 유형유위한 기는 동하면 이가 타서 만물이 드러난다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는 한 가지 길만이 옳다(기발이승일도설)

<이황>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이다

<정약용>

하늘이 사람에게 ‘권형’을 주어서 사람은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다

사단이나 칠정도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선악은 기질지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이며 수양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석가모니와 맹자는 모두 사욕을 멀리하고 도를 추구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석가모니는 결정론, 숙명론, 운명론을 비판하였다

장자와 석가모니는 모두 만물을 주재하는 절대자나 초월적 존재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중관 사상 & 유식 사상>

일체 존재와 현상은 고정된 불변의 성질인 자성을 갖지 못한다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 모두 공에 기반하고 있다

<지눌>

염불은 참선과 같이 수행의 근본 중 하나이며 중요하다

<의천>

자성이 중생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원효>

일심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 다른 종파의 사상도 하나로 귀결된다

<원불교>

사상적 면이나 모든 신앙 의례에서 일체의 인격적 불상이나 존상을 모시지 않고

법신불 그 자체를 직접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다

<플라톤>

육체를 돌보는 것보다 영혼을 돌보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구가 서로에 관해 참견해서는 안 된다

(=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은 자신의 일에만 종사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 일반 시민이 통치자의 일에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데아는 개별적인 사물이 없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 사물의 원형이다

영혼의 지배하는 부분인 이성과 지배 받는 부분들인 기개, 욕구 사이에 반목하지 않는 덕을

‘절제’라고 보았다

수호자들(통치자와 방위자)은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의 재산 공유 x)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하거나 최고 권력자가 철학을 해야 국가의 악이 종식될 수 있다

용기를 갖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한다

<아리스토텔레스>

훌륭한 시민의 탁월함은 모든 공동체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공동체 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천적 지혜가 파악하는 좋음은 어떤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서의 좋음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의 개별적 좋음 이라고 보았다

좋음 자체나 좋음 역시 좋음인 한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좋음 자체가 좋음과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다

지성적 덕은 주로 교육을 통해 길러지고, 품성적 덕은 올바른 행위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길러진다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상태이다

진정한 행복은 탁월성으로서의 덕을 갖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스토아>

신적 이성을 나누어 가진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하였다

모든 감정의 제거를 주장하지 않는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등과

같은 자연적 감정은 인정하였다

<에피쿠로스>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강조하지 않았다

어떠한 쾌락도 그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의는 사람들이 서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이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라고 보았다

<아퀴나스>

자연적 덕은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적 덕이라 보고 신에게 인도해 주는

종교적 덕을 함양할 때 지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적 활동을 통해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하며,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

종교적 덕을 갖추어야 한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루터 & 칼뱅>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를 강조하면서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루터는 모든 신앙인은 성직자이자 사제로서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

칼뱅은 모든 직업은 신이 각자에게 내린 소명이라고 주장하였다(직업 소명설)

루터와 칼뱅은 인간은 자유 의지만으로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베이컨>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지식보다는 인간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데카르트>

생각하는 자아의 존재를 모든 지식의 절대적 바탕으로 삼았다

형이상학적 원리로부터 이성적 추론을 통해 지식을 얻어내는 연역적 방법을 중시하였다

< 스피노자>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다

자연의 모든 존재는 필연적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신은 초월적 창조자나 인격신이 아니며 자연 그 자체이다

‘신, 즉 자연’은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이고, 자연의 개별 사물은 하나의 실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인 양태이다

인간도 자연의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자기 보존 욕망 부정 x)

인간은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하면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흄>

이성은 도덕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지만 도덕 실천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고 감정이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이다 = 이성은 단지 도덕 실천을 위한 수단을 알려 줄 뿐이다 = 이성은 감정이 설정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성이 아닌 쾌감이나 불쾌감 같은 감정이 도덕적 구별에 기여할 수 있다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감정이나 부인의 감정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 칸트>

도덕 법칙은 어떠한 개인적 선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의지만이 무제한적으로 선하다

도덕의 원리와 자기 행복 원리를 구분하면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무일 수 없으며, 의무가 문제가 될 때에는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스토아 학파와 칸트는 결과와 무관하게 인간이 행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신처럼 완전히 선한 의지를 지닌 존재에게는 의무가 부과될 필요가 없으며, 동물과 같이

이성 능력이 결여된 존재에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연적 욕구를 지닌 존재이지만 이성적 사유를 통해 자연적 욕구를 극복할 수 있다

<로스>

조건부 의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옮고 명백한 의무이다

어떤 조건부 의무가 다른 조건부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실제적 의무가 될 수 있다

<벤담>

덕이란 더 큰 이익을 위하여 작은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행위자의 쾌락만이 아니라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쾌락도 고려해야 한다

공감과 반감과 같은 감정에 판단을 맡긴다면 그 감정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떄문에 공감의 원칙은 도덕적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

<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는 희생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양과 무관하게 가치가 있다

고통이 제거된 후에도 최대의 행복이 되도록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 키르케고르>

신은 유일신이며 인격신이다 (세계 안의 모든 만물이 곧 신이다 x)

<사르트르>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데거>

삶의 유한성과 일회성을 깨달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존재인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해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죽음이 극복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듀이>

벤담은 도덕의 최종적 목적이 고통의 최소화와 쾌락의 최대화라고 보았지만, 듀이는 도덕에

최종적인 목적이 없다고 보았다

목적은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과정이다

<모어>

유토피아에서는 정의로운 제도와 극소수의 법률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가 운영된다

<롤스>

양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할 때 제한될 수 있다

정의의 원칙 중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으로 보았다

차등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법은 불복종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시민 불복종이 위법 행위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롤스와 하버마스는 모두 시민 불복종을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홉스>

자연 상태를 공통의 권력이 없는 전쟁 상태로 보았다

국가는 구성원들 모두의 자연권을 양도받은 주권자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은 군주에게 귀속된다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이성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했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은 가능하지 않지만 국가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당한다면 개별적으로 반발할 수는 있다

국가를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 보았으며 사람들 각자가

주권자가 한 판단과 행위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았다

<로크>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루소>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규정하지 않았다

일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법을 지키는 것은 타인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를 따르는 것이기에 자유로운 행위이다

국가가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인 일반 의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람들 각자가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결국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양도하지 않게

되며,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

공산 사회가 실현되면 국가가 소멸되고 자발적인 연합체가 들어선다

국가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페팃(공화주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 간섭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라고 보았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법이 부여하는 비자의적인 간섭과 양립이 가능하다

<비롤리(공화주의)>

애국심은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 사랑으로, 자신이 태어난 정치 공동체에

대한 선천적인 애착을 의미하지 않는다

애국심은 좋은 정치와 공적 책무에 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인위적 감정이다

<민주 사회주의>

정부나 중앙 기관이 모든 경제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경제적 권력은 분권화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윤보다 우선하는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

생산 성과를 분배할 때 기본적 필요를 우선 고려하지만 노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등 필요에 따라서만 생산 성과가 분배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하이에크>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 문제를 의도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생적 진화를 통한 자연적

질서를 추구해야 한다

<묵자>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누면 전쟁과 같은 불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침략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았으며

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개입하여 침략당한 나라를 도와줄 수 있다고 보았다

강대국의 횡포로부터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전쟁에는 참여할 수 있다

<칸트>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 환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구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권적 권력을 행사하며 개별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국제 국가가 아니라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연맹이다

<갈퉁>

정치와 경제에서의 억압과 착취는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중요한 형태로서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